



입력 2014.08.08 17:33

 인쇄하기 취소

목포대 로봇팀 전국대회 대상…국제대회 출전권 획득



369



459

목포대(총장 최일) 제어로봇공학과 지능공간 연구실(ISL·intelligent Space Lab) 로봇대표팀(지도교수 유영재)은 최근 열린 로봇축구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유영재 제어로봇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iSL연구실 소속 찰스(CHARLES) 로봇팀(이기남·이용준(박사과정, 곽현진·조규진 석사과정, 길우람 4학년)과 토토(TOTO) 로봇팀(김진관 석사과정, 정준호·정광덕·박태훈 (4학년)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로봇융합페스티벌 로봇축구전국대회에 참가했다.

국내·외 3121팀 521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목포대 로봇팀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휴로(HURO)컵에 참가해 종합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휴로컵은 마라톤·스프린트·농구·장애물 달리기·축구 등 총 9가지 세부 종목으로 구성돼 총 3일 동안 각 세부 종목별 순위로 접수를 접계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번 수상으로 목포대 제어로봇공학과 로봇팀은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로봇축구대회 FIRA컵에 출전할 수 있는 티켓까지 거머쥐었다.

유 교수는 "작년 FIRA 인비테이셔널컵 은메달을 획득한 성과에 이어 이번 대회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목포대의 로봇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을 입증했다"며 "11월에 중국에서 열리

는 국제로봇대회에 대표로 출전해 세계적인 대한민국 로봇 기술력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실은 현재 찰수-Ⅰ에 이어 찰수-Ⅱ 개발을 완료했다. 로봇 찰스는 총 21개의 관절로 이뤄져 있으며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가 있어 인간-로봇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토토는 교육용 로봇으로 현재 학부 교육과정 중 로봇공학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유아교육 용으로 확대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목포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은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과 학생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제어로봇공학과 학생들이 로봇 찰스와 로봇 토토를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내는데 기여해 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